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 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5년 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12:1-3)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말세의 징조들 1

(마 24:3-22)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셔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은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살던 곳이었고, 예루살렘을 출입하기에도 가까운 곳입니다. 감람산으로 오신 예수님께 제자들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합니다.

1.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할 것이라는 징조

제자들이 종말의 때와 징조를 물을 때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하신 말씀은 미혹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4-5절). 종말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교활하게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도 미혹받기가 쉽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마 24:23-24).

사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오히려 너무 황당해서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가르침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금방 넘어가게 됩니다.

2. 흉흉한 소문들이 많이 날 것이라는 징조

흉흉한 소문 중에 첫 번째는 전쟁의 소문입니다. 말세가 가까워 오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많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근과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6-8절).

3. 불법이 성하므로 사랑이 식어지는 징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랑은 식어지므로 많은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실족하게 됩니다(12절).

이런 징조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 간에 상처를 주고 받으며 깨어진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4.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징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14절).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역사의 종말에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현재 전 세계 2만 4천여 개의 종족 중 2500개의 종족을 제외한 나머지 종족에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보면 지금은 분명 마지막 시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시작이 있었듯이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이며 모든 것들이 끝나고 심판을 받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지금 이 순간을 최고의 충성된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The Signs in the End of the World I

(Matt. 24:3-22)

Jesus left the Temple of Jerusalem and went to the Mount of Olives. The Mount of Olives was the place where Nazaro and his two sisters lived which was near Jerusalem. His disciples asked Jesus, "What will be the sign of your coming and of the end of the age?" with some significance.

1. The signs that false Christ and false prophets will appear a lot

When his disciples asked the sign of the end of age, the first word Jesus said was not to deceive many (vv. 4-5). The Bible says, "At end of the world, in that the false Christ and false prophets trickily perform great signs and miracles, even the elect can easily be deceived by them" (Matt 24:23-24).

In fact, those who we should tighten guard against are false prophets. We can rather discriminate false Christ from the sheer nonsense right away. But the false teaching of false Christ can make us fall into trap if we don't use discernment.

2. The signs of chaotic rumors will happen

The first one of the chaotic rumors is of wars. When the end of the world comes, nation will rise against nation and wars will break out. By taking one step forward, Jesus says that they will be famines and earthquakes all over the world (vv.6-8).

3. The signs of which love will grow cold because of increased weaknesses

When the end of the world comes, because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will break down, they hate and knock down each other (v. 12).

Since such signs appear to us, we do not know how many people will give and receive any hurt between family, friends, and neighbors, and how they live in the broken relationsh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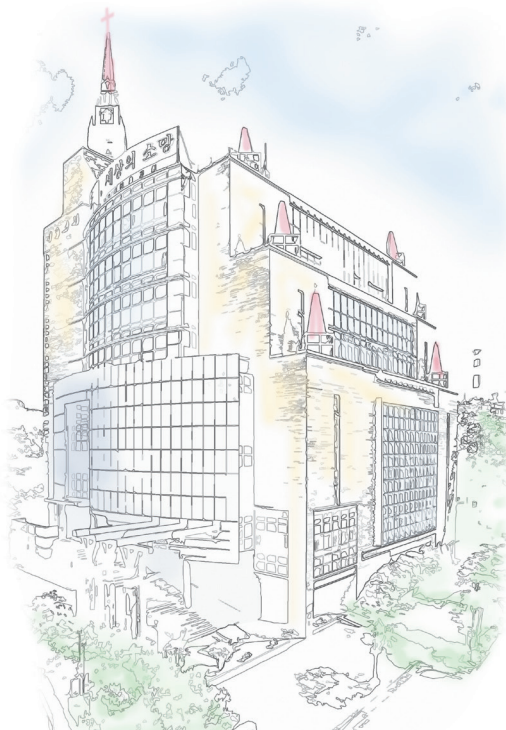
4. The signs of which the Gospel will be preached all over the world

"And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in the whole world as testimony to all nations, and the end will come (v. 14).

The center of history is Jesus Christ, and at the end of history, the Gospel will spread all over the world. Nowadays, we realize that the Gospel has been preached in twenty four thousand tribes except two thousand five hundred, which means that it is really time that the age of end will come.

My beloved Christians,

The Bible really says, "just as the beginning of history exists, so the end exists. When the end comes, it is time that Jesus came again, everything finished, and we will be judged. Therefore, at this very moment, by giving this time as the most loyal time,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us will be God's blessed peopl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제14대 장로 3명 피택되다

5월17일(주) 공동의회에서

지난 주일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실시된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제 14대 장로 3명이 각각 선출되었다. 장로로 피택된 이들을 위한 교육이 어제 5월23일(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1월7일(토)까

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번에 피택된 이들이 교육과 훈련과정을 통해 주님의 귀한 종이 되도록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기 바란다.

제14대 피택장로



홍 일 성



주 동 재



차 도 훈

“니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니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딤펢전 1:12)

「2015 흥해 작전」

주제 :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대상 16:10) / 강사 : 박노철 담임목사
6월6일(토)~25일(목) / 새벽 5시~6시

- 온 가족, 온 다락방이 함께 새벽을 깨우자!
- 다음세대와 함께 기도하여 흥해를 가르자!
- 온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부흥을 이루자!

2015년 흥해작전 준비가 시작되었다. 2015년 흥해작전의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대상 16:10)이다.

기간은 6월 6일(토)부터 6월 25일(목)까지이며, 시간은 새벽 5시부터 6시까지이다.

흥해작전은 택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시고, 흥해를 열어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조국의 안전과 복음화, 서울교회와 한국교회의 부흥, 가정과 개인의 기도제목을 내어 놓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흥해를 믿음으로 건너고자 하는 "말씀과 기도운동"이다.

모든 성도들은 기도로 준비하기 바란다.

흥해작전 기도제목

- 1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흥해를 진너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드리오니 받게 하옵소서.
- 2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 3 말씀과 기도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 4 우리에게 다음세대를 맡겨주신 주님!**
우리의 다음세대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잘 양육되어 교회와 국가와 세계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 5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 6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개인과 가정과 일터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어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 7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옵시고, 복음화된 통일 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흥해를 건널 수 있도록 새벽마다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멘

네팔지진피해 구호금 지원



우리교회는 지난 4월 25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 인근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고통 당하고 있는 네팔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봉사부와 러브네팔미션을 통하여 서울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전달하였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은 목사 성령난해구절 해설(170)

(문 170)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율법에 기록된바 내가 너희를 신(gods)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요10:34)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답)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요 10:30)라고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사상의 빛 속에서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으나 그들은 예수가 신성 모독 죄를 범했다고 오관했던 것입니다. 즉 사람으로서 자칭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33절). 실은 예수님은 그들의 거절과 적개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구약의 시편을 인용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시82:6)라는 말씀은 모든 인간이 신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고 하시면서 “성경은 폐할 수 없다”(요10:35)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신이란 복수명사로서 다신교에서 말하는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 진리를 가진 이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관리자들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시82편에서 하나님은 자기 율법을 가르치고 시행하는 대표자로 선택한 재판관과 관리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어떤 재판관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부자의 편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였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을 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비록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 된 신분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거룩한 직분에 대한 불성실함 때문에 너희는 다른 사람들처럼 죽을 것이며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왕자들 중 하나처럼 넘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82편을 인용하시므로 자신과 구원받은 인간은 구별되어야 하며(요10:35-36)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유일한 자기 신분을 확인시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관계에서 구원 백성이 된 구약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의 거룩한 가족으로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덕성이나 순종한 보상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생득적 권리로 소유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주어진 특전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들 됨은 상속된 것이 아니고 파생된 것이었습니다. (창6:2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신14:1, 32:5, 시73:15, 호1:10에서 말씀된 것처럼 언약으로 부름 받아 믿는 자가 된 이들을 가리킨 성경구절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들 예수님의 신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세례요한 같은 선지자들이 있으나(요1:6) 그들은 땅으로부터 땅에 온 자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하늘로부터 오신 유일하신 분이시므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양자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신자와 하나님으로서 신분을 본래 가지신 예수님과 크게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 ‘암몬의 아들들’, ‘유다의 아들들’, ‘바벨론의 아들들’과 같은 말은 그들 국가 또는 종족 전체를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재판관과 관리들을 말한 것입니다.

(출21:6, 22:7-8:27, 시8:5, 82:1, 138:1)
(다음 주 계속)

홍해작전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이관규 장로
(홍해직전준비위원장)

희망찬 꿈과 소망을 안고 한해를 출발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의 문 앞에서 있습니다. 서울교회 성도들은 6월이 되면 갈라진 홍해와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생각하면서 홍해작전을 기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백삼십 년의 긴 종살이를 청산하고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모세의 지도하에 함차게 전진 전진하던 중에 넘실거리는 홍해가 모두를 집어삼킬 기세에 겁을 먹게 됩니다. 또 뒤를 돌아보니 애굽의 마병과 철병거들이 금방이라도 달려들어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이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바람을 일으켜 마른땅과 같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는 조국의 절박한 문제와 한국교회의 어려운 상황과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택하신 백성인 우리 서울교회의 어린이로부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가정과 직장 교회와 홍해와 애굽의 철병거와 같은 도저히 비켜갈수 없는 문제를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우리 모두 새벽을 깨워 능력과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 받아 천국의 백성으로 승리의 삶을 얻는 기회로 삼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강림주일

pentecost

오늘은 오순절, 성령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첫 곡식을 감사하는 절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 곡식을 감사하는 이 절기는 유월절 이후 50번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날은 흔히 '맥추절'(출 23:16)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에 밀과 보리의 첫 추수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은 또한 '칠절절'(출 34:22)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유월절에서 7주가 지난 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순절은 첫 곡식을 추수하는 감사의 예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을 위하여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뻐하며 감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영혼과 정신을 새롭게 출발시켜 주시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던 감사의 절기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의 첫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이 된 것입니다.

또한 오순절은 강한 바람과 함께 불의 혀 같은 것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던 때(행 2:1-41)를 기념하는 절기로 승화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의 회중들에게 유대의 전 역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이 성취된 것까지를 일목요연하게 선포하는 능력 있는 설교를 하였을 때 3천 명의 회심자를 얻는 역사적인 선교의 장이 열리는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오순절 성령강림주일은 교회가 메시아의 완성된 시간의 상징으로 지키는 날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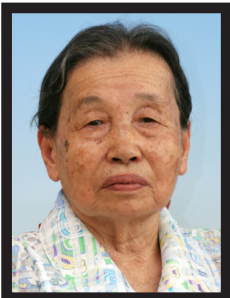
(편집부)



나의 하나님

어머니

홍성주 장로 (5교구)



고 조옥순 권사

어머니!

언제나 뵙고 싶으면 뵈울 수 있었고 이런저런 대화도 나눌 수 있었던 당신이 이젠 이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고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고관절 수술로 교회출입이 어려워진 후에도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드리기를 좋아하셨고 교회를 사랑하셨던 어머니.

나를 걱정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인치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나를 모태에서부터 예배당으로 데리고 다니시며 예배에 참석토록 하시고 시시때때로 성경말씀을 먹여주신 분, 조옥순 권사님.

우리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신 시어머니(고 조양례 권사)를 만나 하나님을 믿게 되고 7남매에게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제 2대 믿음의 조상. 그러한

당신의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 가정에서 목사, 사모, 장로, 권사, 집사 등 여러 교회 직분자들이 배출되고 5대에 걸쳐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고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지요.

교회연합 사경회(查經會:성서강해와 연구를 중심으로 모이는 집회)가 모임 때면 다른 지역에서 오신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집을 통째로 내놓으시고 침식까지 제공하며 사랑의 수고를 하시므로 온 집안이 성경 읽는 소리와 찬송 소리로 가득하게 하신 일, 농촌교회 건축현장에서 머리에 벽돌을 이고 나르시며 몸 바쳐 헌신하시던 모습, 심방이 필요한 가정에 목사님을 동행하여 전도부인 역할을 자청하여 맡으시던 일, 이웃집 아주머니를 전도하여 그 가정이 복음화 되고 권사로 임직하여 교회 일꾼 되게 하신 일, 이 모든 것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신 삶이었습니.

육신의 어머니는 안계시지만 어머니이 들려주신 성경말씀은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합니다. 어머니.

